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獨裁*

李 貞 姬

《목 차》

I. 序	실적 적용
II. 레닌이론의 일반적 체계	1. 1917년 10월革命과 「프독재」
III. 「프롤레타리아獨裁」이론에 나타난 계급, 전위부대, 黨, 독재, 국가의 정의	2. 신생사회주의국가 건설에서의 변화
IV. 「프롤레타리아獨裁」이론과 현	3. 레닌의 마지막 노력
	V. 結

I. 序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론을 후진국인 러시아 상황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社會主義 이론상의 발전에 새 전환을 마련하였다.¹⁾ 그 이후 70~80년간 레닌의 이론은 한편에서는 추

* 이 논문은 1991년 10월 한국서양사학회가 주최한 「사회주의 운동의 변천」의 주제 하의 학술공동회의 발표의 한 분과로 집필된 것이다.

1) Liebman, M, *Leninism under Lenin* (London, 1975); Meyer, A. G., *Leninism* (New York, 1962); Schapiro, L. B., *The Revolution of 1917: The Origins of Modern Communism* (New York, 1981); Ulam, A. B., *Lenin and the Bolsheviks* (London, 1969); Conquest, R., *V. I. Lenin* (London, 1972); Obuchkin, G. and Pankratova, M., *V. I. Lenin, A Short Biography* (Moscow, 1969); Trotsky, L., *On Lenin: Notes towards a Biography* (London, 1972); Eissenstadt, B. W. *Lenin and Leninism* (Lexington, 1971); Harding, N., *Lenin's Political Thought*, 2 vols. (London, 1977) 등이 레닌의 사상과 생애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들이다.

종자들에 의해 우상시되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全體主義的 권력을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악마화되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부는 레닌이 실천적 저술가로서는 탁월하나 마르크스주의의 理論家로서는 논리의 모순이 많으며 절충적인 이론을 취함으로서 입장의 변화가 자주 일어난 非正統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보기도 한다.²⁾ 다만 이론상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黨組織 이론의 분야, 革命운동 수행의 방법, 권력장악을 신속하게 하는 장치와 기구에 관한 부분이지 보다 결정적인 요인들, 즉 生産力의 발전과 수준에 관한 문제, 계급분석, 意識수준, 미래 社會主義 秩序의 개념 등에 관해서는 성숙한 결정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권력추구욕 등으로 지극히 原始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였다.³⁾ 레닌의 이론적인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는 1920년대부터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멘셰비키, 1940년 이후 서구의 左派들에 의해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스탈린시대 자체에서도 레닌을 체계적으로 각색하거나 우상화하는 작업을 함으로서 史料에의 보다 냉정한 관찰에 지장을 주는 사태가 생겨났다.⁴⁾ 그뿐만 아니라 전후 제3세계에서 급진적 지식인들이 종속적 식민지배를 탈피하기 위해 급진적 체제변혁의 전술이론으로 레닌주의를 수용함으로서 그의 黨조직론, 엘리트전위부대의 의식화, 행동적 폭력적 저항 등을 크게 부각시켜 과잉소비하기도 하였다.⁵⁾

레닌의 전술상의 이론들은 그의 체제내의 본질적 일부를 이루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양자해석은 당시대 러시아의 상황과 특수성과의 관계

2) 이 같은 입장은 E. Wilson의 *To the Finland Station*, R. N. C. Hunt의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London, 1950), J. Plamenatz,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1954)에서 나타나고 있다.

3) 특히 B. Wolf, S. W. Page, E. V. Wolfenstein, R. H. Theen, F. D. Stacey 등이 이 같은 심리분석의 접근을 사용한다.

4) 1930년대부터 스탈린의 역사분석은 계급이나 사회 구조상의 과학적 분석을 포기하고 대신 국가의 권력, 기능, 조직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대체되었다.

5) 이는 종속이론가들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크게 부각시켜 저개발국가에서는 자본주의로 인해 후진성이 심화된다는 논리를 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계급국가의 분석에서 종속이론가와 레닌주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부분만 과잉해석하여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사실 레닌자신은 전제정러시아 시절의 지하활동기, 혁명기, 내란기, 신생국가 수립기 등 너무도 다양하고도 빠른 변화의 상황을 거쳤고 그때 그때의 실제문제에 봉착하여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레닌의 사상은 체계화할 여유가 없었던 특징이 있다.⁶⁾ 고로 그의 주장들은 러시아의 역사적인 상황을 떠나서는 결코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시대적 산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자주 잊히지면서도 흥미로운 또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레닌자신이 이론과 실제의 갈등을 자주 느꼈고(고백하기도 함) 때로는 유토피아적 新社會를 묘사하기도 하고 革命以後에는 신생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黨독재와 관료제의 위험을 자주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하고 페레스트로이카大改革의 전망도 불안해져 있는 오늘날 레닌주의는 社會主義 이론가나 歷史家들의 재평가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붕괴와 실패에서 오는 감상적인 매도는 오히려 社會主義 체제의 실험에 있던 진정한 옳음과 그름의 분별을 흐리게 할지 모른다. 이에 歷史家들은 史料에의 좀 더 밀착된 검토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볼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점에 역점을 두면서 레닌주의의 그 자체의 이론상의 특성을 그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으면서 논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레닌이론의 일반적 체계

레닌주의 이론의 주제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의 理論의 핵심이 나타나는 저술로는 「러시아 資本主義 발달」(1899, CW. 3, SW. I),⁷⁾

6)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저항의 이데올로기와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7) Lenin, V. I., *Collected Works* (Russia의 4판 영어번역본, Moscow, 1960 70), 45 vols., 이는 1893~1923년 3月까지의 저술을 연대기적으로 분류함. *Selected*

「人民의 벗이란 무엇인가?」(*Vospominania*, I), 「무엇을 할 것인가?」(1902, CW. 5), 「제국주의」(1916, CW. 19), 「국가와 혁명」(1917, CW. 23),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1918, SW. 3), 「제2차 코민테른대회 보고서」(1920, SW. 3), 「협동조합론」(1923), 「Rabkrin 조직」(1923) 등을 꼽을 수 있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더욱 나아간 새 이론적 개발을 추가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主義主義(Voluntarianism)이었다.⁸⁾ 그는 마르크스의 계급혁명 결정론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階級은 사회의 생산력이나 구조의 발달에 의해 생겨나지만 그것만으로는 意識이 생겨나지 않는다. ‘革命은 오는 것’(Coming)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것’(Making)이다. 民衆은 속박되어 있는 약한 존재이므로 그 自體로서는 해방될 수 없으며 이에 의식의 주입과 정치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 意識을 불어넣어 주는 진보된 계급, 즉 전위부대(Vanguard of Proletariat)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전위부대, 곧 黨이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성분에서 생겨나지는 않는다 해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목표와 세계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양자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위부대는 意識에 있어

Works(4판의 영역본), 3 vols, (Moscow, 1975). 이를 각기 CW, SW로 略함. Golikov, G. N. et al., *Vospominania O Vladimir Iliche Lenin*, 5 vols. (Moscow, 1969-70). 참조.

- 8) 이 자발적이기도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 革命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사상은 러시아에 마르크스주의가 도입되기 이전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의 형태였던 1870~1890년간의 러시아 인민주의 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레닌 자신은 人民主義를 비과학적이고, 복고적인 것으로 경멸조로 얘기하지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 人民主義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정희, “19세기 후반 서구 사회주의와 러시아 人民主義운동, 1870~1890”, 영남대, 「인문연구」, 13: 2(1992.2), 또한 레닌의 사상의 기원을 人民主義 전통에서 찾으려는 논문으로서는 Pipes R. “Intellectual Evolution of Lenin”, in *Revolutionary Russia*, pp. 33-79, (Cambridge, Mass., 1968)가 유명하다. Pipes, R., *Social Democracy and the St. Petersburg Labour Movement, 1885-97*. (Cambridge, Mass., 1963), Haimson, L. H., *The Russian Marxism and the Origins of Bolshevism*, (Cambridge, Mass., 1955)를 보라.

서 앞서며 운동을 이끌고 지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또 그는 노동계급은 自生的인 운동을(Spontaneity) 믿지 않을 것과 엄격히 조직되고 훈련되며 보다 현실적인 전문 전위부대에 의해 지도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세째, 러시아의 農民階級을 半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간주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후진국러시아에서의 社會主義 革命의 성취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았다.⁹⁾ 農民과의 同盟은 마르크스의 인식과 크게 다르다. 또 人民主義者の 입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레닌 자신의 농촌사회 경제의 분석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인데 극히 초기사상 때부터 나타났다. 그는 1905년 혁명의 부르조와 革命의 단계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와가 아니라 農民과 지식을 동맹자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째, 社會主義 革命의 시작의 시기는 바로 帝國主義 戰爭의 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一次대전은 본질적으로 독점금융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국가의 충돌이며 帝國的 전쟁이라 보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몰락을 갖고 올 것이며, 국내적으로 階級戰爭을 유발시킬 조건을 만든다고 하였다. 고로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⁰⁾

다섯째, 레닌의 마지막 중요한 理論的 기여는 「프롤레타리아獨裁」 이론이다. (이하 Pt독재라 略함) Pt독재의 개념은 마르크스·엥겔스에게 이미 사용된 바 있으나¹¹⁾ 레닌은 그보다 한층 더 세밀하고 과격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현실에 적용하였다. 후일 그를 全體主義的 共產主義 이론의 시조라고 부르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그

9) 農民層에 대한 레닌의 시각은 마르크스의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 원인은 러시아의 농민이 한번도 社의 소유의 개념을 가진 적 없는 빈곤하고도 피착취를 받은 農奴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

10) SW: 634-731.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A Popular Outline" 참조하라.

11) Bender, F. L., "The Ambiguities of Marx's Concept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ed. by Jessop, B.,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s: Critical Assessment* (London, 1990), Vol. III: 356-383. 이하 KMSPT로 略함. Engels, F., *The Origin of the Family, The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42).

러므로 「Pt독재」 이론은 레닌주의의 강력한 특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 킬레우스의 뿔꿈치와 같은 약점이기도 하다.¹²⁾

「Pt독재」 이론 때문에 흔히 레닌이 권력추구를 목표로 한 자코방당 스타일의 혁명가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그의 사상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 있는데 이는 매우 피상적인 관찰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개 러시아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경제적 결정론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노력이 저술활동의 전체에 걸쳐서 나타남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시절에 썼던 논문중 「러시아 自本主義 발달」은 특히 그의 사회경제적 연구의 방법론이나 러시아 사민당의 실제적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예고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이에 의하면 1890년대 러시아는 이미 자본주의가 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섰으며 그 특성은 農村에서조차 나타난다. 농촌의 쿼문은 이미 해체과정에 있고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띠면서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맞추어서 民衆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하리라고 보고 이 단계에 의거해서 黨개념과 조직이론을 발달시키고자 하였다.¹⁴⁾ 1890~1905년 사이 러시아는 국가 주도의 産業化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생겨나면서 페테로그라드 노동자들의 파업운동이 확산되었다.¹⁵⁾ 전제정의 혹독한 탄압아래 파업운동은 자주政治的 성격까지 띠었다. 레닌은 노동계급의 自由主義的 민권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부르쵸와나 中産層과 제휴하여 효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동맹세력은 知識人이 가장 적절하다고

12) Harding N., *Lenin's Political Thought*, Vol. 2, pp. 201-220.

13) CW. 3. 1889~1892년 사이에 Samara에서 레닌은 당시 선배이론가와 인민주의자들을 상대로 농촌쿼문의 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격렬히 논쟁을 벌여 그 과학적인 분석으로 모두를 압도하였다.; Nove, A., "Lenin as a Economist," in Schapiro, L. B. and P. Reddaway, *Lenin: The Man, Theorist and Leader* (London, 1968), pp. 187-210.

14) Harding, N., *op. cit.*, Vol. 1. pp. 36-52.

15) Lyashchenko, *History of the National Economy of Russia to the 1917 Revolution*, Trans. by L. M. Herman, (New York, 1949). pp. 403-566. Chap. 22-26. 참조.

본 것은 레닌뿐만 아니라 당시 급진적 인텔리겐차 대부분의 생각이기도 했다.¹⁶⁾ 당시의 노동운동은 주로 自生的(Spontaneous)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⁷⁾ 「무엇을 할 것인가?」(1902)는 볼셰비즘의 기원이라고 흔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 수정주의자들, 이른바 경제주의자들의 타협적 입장을 공격하고 노동운동에서 목표와 계급의식과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論議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¹⁸⁾

레닌의 中央集中的인 黨의 조직이나 지하활동은 사실은 1907~14년 사이 전제정부의 새로운 시대착오적이고도 배신적인 反動시기에 강조되었다.¹⁹⁾ 1905년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허용된 合法的 勞組主義를 레닌은 노동계급의 지위향상에 도움된다고 믿지 않았고, 부르조와 혁명의 단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봄으로써 사민당 온건파, 즉 멘셰비키와 완전히 선별하였다. 一次대전 직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反動政策은 또 다시 상부층과 하부층을 둘로 쪼개 놓음으로써 대규모의 민중폭동을 유발시켰으며 레닌의 地下黨의 전술에 현실적 성과를 갖다 주었다.²⁰⁾ 대전은 점진적 노동운동의 발달을 주장해온 멘셰비키와 온건파 노선에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전쟁 이후의 패전과 궁핍과 民衆의 이반 속에서 전제정부는 무너

16) Wildman, A., *The Making of a Workers' Revolution* (Chicago, 1967). 참조.

17) Johnson, E., *Peasant and Proletariat: The Working Class of Moscow in the Late 19th Century* (New Brunswick, 1979).

18) Wildman, A., *op. cit.*; CW. 5: 440; 「Iskra」誌는 「Rabochaya Mysl」, 「Rabochee Delo」의 수정적 노선에 대하여 창간되었다.

19) Bonnell, V., *Roots of Rebellion: Workers' Politics and Organization in St. Petersburg and Moscow: 1900-1914* (Berkeley, 1983) 참조, 1907년 기습적인 선거법의 개정은 도시노동자에 큰 타격을 주었고 입헌자유파의 행동반경이 극도로 좁아졌다.

20) CW. 9: 368-9, 레닌은 1907년 전제정부가 부르조와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권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1905년 혁명의 실패는 대중의 물질 조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것이라 하였다. 고로, 지방조직에서 많은 젊은 노동자, 의식있는 청년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은 사민당내에서 온건파로부터 배척받았다. 이때부터 볼셰비키는 완전히 멘셰비키와 결렬되어 1907~1914년까지 전연 별개의 조직과 이념과 방법을 가진 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합법적 노조활동의 탄압으로 도시에서 노조원의 수가 10%로 줄어가는 사이 地方과 농촌에서는 볼셰비키당원이 더 적극적, 활동적인 비밀행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졌으나 온건파인 임시정부는 ‘전쟁의 해석’과 ‘사회적 改革’ 문제에 대해서 民衆과 심한 의견대립을 갖게 되었다.²¹⁾ 이때 레닌의 「제국주의」(1916)는 러시아 민중의 염전사상과 국내 계급적 대립의 심화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었다.

1917년 2월 혁명이 目標나 意識 면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국내의 上·下 部層의 분열이 다시 재개될 때 레닌은 「國家와 革命」(1917) 속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 이론을 전개하였다. 다시 말해 독일 사민당과 제2인터내셔널이 붕괴하고 국내에서의 권력 공백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할 무렵에 그는 國家와 권력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 프롤레타리아 革命 이후의 新秩序, 社會主義를 추진할 기구의 개념 등을 논하였다. 「제국주의」는 당시의 國家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지만 「國家와 革命」은 미래의 질서와 移行期에 대한 개념을 다루면서 10월 봉기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가장 전위적인 저술이었다. 또한 이것은 유토피아를 그리는 민주적 측면과 함께 독재의 싹을 키우는 권위적인 측면을 갖는 모순을 담은 저서이기도 하였다. 레닌의 사상적인 전체계를 이 한 편의 글로서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Pt독재 이론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론이 혁명을 겪어 가면서 어떻게 변화 적용되었는가, 내용상의 변화가 후일 全體主義의 共產主義라는 체제에 어떤 암시를 주었으며 레닌 자신은 이에 대해 어떤 갈등을 느꼈으며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를 살펴보자.

III. 「프롤레타리아獨裁」 이론에 나타난 Pt계급, 전위부대, 黨, 독재, 국가의 문제

러시아革命과 레닌의 사상에서 아마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만큼 난

21) Ferro, M., "The Aspiration of Russian Society," in R. Pipes (1968), *op. cit.*, pp. 183-209.

해하고 애매한 것은 없을 것이다. 원래 이 개념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1848)과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²²⁾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작용하는 명백한 경제적 법칙의 결과로 사회의 양분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고 노동자는 숫적으로 가장 강력한 다수를 대표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혁명을 성취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얻게 된다고 기술하였다.²³⁾

1848~50년 사이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을 목격하면서 마르크스는 국가와 共產主義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국가란 계급적 통치를 의미하는데 생산수단을 가진 한 계급이 정치과정을 통제한다. 그에 의해 선출된 관리가 민주정인든 군주독재이든 대표한 계급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다. ... 다만 Pt계급의 독재는 民衆을 대표하므로 급격히 민주적 성격을 띤다. Pt는 산업화에서 숫적으로 우세한 계급이 되고 고용주에 대항해서 공동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르조와의 정치적 패권에 도전할 것이며 ... 보통선거제가 도입되면 Pt는 차츰 부르조와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에 성공할 것이다.²⁴⁾

그러나 1848년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부르조와지가 패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보통선거제 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선거를 통해 부르조와적 독재자인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 마르크스는 의회제와 선거의 방식을 통해 Pt지배권을 얻으리라는 낙관적 신념을 포기하였다. 그 대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의 시기가 요구되며 이때에 국가란 Pt독재정을 의미하는 그런 정치적 전환의 시기가 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독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계급없는 사회주의 사회의 수립과 국가소멸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행의 일시적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그는 Pt독재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설

22) 그러나 사실은 1837년 A. Blanqui가 이 용어를 제일 먼저 만들어 낸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23) “Communist Manifesto,” in Marx, Engels, *Selected Works*, I: 44. 이하 MESW로 略함.

24) Bender, F. L., “Marx and The Dictatorship of Proletariat,” *KMSPT* 3: 359.

명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Pt계급의 독재는 계급차별 철폐를 위한 필연적인 전환점이다」라고만 선언하였다.²⁵⁾ Pt독재는 계급의 구분을 없애고 계급이 의거한 생산관계, 사회관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세와 엄중한 유산·상속세의 의무를 통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대기업 소유주의 자본가들이 사적 착용을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자산을 몰수하거나 국유화를 시행하고,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국영농장과 국영공장을 건설하고, 모든 수술과 금융은 국유화하며, 어린이에게 무상교육, 전문기술교육제를 도입하며, 비위생적이거나 불건강한 주택, 거주지는 철거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모든 정책속에서는 약간의 박탈행위가 있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커다란 보상을 받는 것이 되리라 보았다.²⁶⁾ 그런데 마르크스의 Pt독재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막연한 원칙은 1871년 파리코뮌을 겪고난 이후 변화를 겪었다. 그는 파리코뮌을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발견된 정치적 형태”라고 정의내리고 Pt독재의 모형이라고 말하였다.

코뮌은 도시에서 보편선거로 선출된 市위원단으로 구성되었다. ... 대다수는 노동자이거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들이었다. 코뮌은 의회가 아니라 직접 일하는 행정기구이며 동시에 입법기구였다. ... 경찰 역시 중앙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며 정치적인 성격은 벗어버리고 코뮌에 책임지고 소환되는 기구가 된다. 행정부의 모든 관리나 지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뮌의 상부 구성원에서 아래로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는 노동자의 임금의 수준으로 지불받는다.²⁷⁾

여기에서 보듯이 Pt독재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가 정부에 직접 참여하고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가 입법·행정을 동시에 관장함을 뜻하였다. 코뮌의 묘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政黨이나 관료·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25) Marx, K., *The Class Struggles in France 1848~50* (New York, 1964); MESW. I: 223.

26) MESW, I: 78.

27) Marx, K., *Civil War in France*,; MESW I: 485, 522.

사실 마르크스에게서 Pt계급의 黨(Party)의 개념에 관련된 정의는 별로 없다. 다만 그것이 부르조와 계급의 독주에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뿐, 국가와의 관계나 他사회계급과의 관계나 형태나 기능이나 혁명활동 등에 대한 이론은 별로 없다. 1848~1875년 사이 그의 黨의 개념은 자주 달라져 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처음엔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국제조직의 간부를 의미하다가 노동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노동자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848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黨을 Pt계급의 이론가, 혹은 이론적으로 높은 의식을 갖는 지도부로 정의내렸다. 차츰 黨은 특정 정파나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Pt계급을 대표하며, Pt계급을 정당으로 만들어갈 조직을 의미하였다.²⁸⁾ 그는 黨과 政派를 구분지었고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라살레나, 블랑키주의자와 대립하였다. 마르크스의 정의에서는 黨이 자생적으로 조직되는지 의식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는 매우 애매하다. 보다 그가 중시여긴 요건은 黨이 자기해방, 독립성, 순수성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고 권력을 갖기 이전에 독재권의 행사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본 듯하다. 이같은 개념들은 1871년 콰뮈를 경험하면서 좀 더 권위주의적인 권한의 행사의 필요성으로 기울어진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1848~75년 사이 Pt독재에 관해 마르크스의 생각에서 변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Pt는 부르조와의 모든 정치기구를 인수받는 것만으로는 社會主義的 사회로의 변화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 둘째, 국가권력은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권력 그 자체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며, 세째, 파리콤뮈 운동은 Pt권력의 위대한 실험으로서 과도기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것, 네째, Pt독재는 일정 기간동안 中央執權化를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독일영방 지배나 프랑스 제2제국

28) Johnstone, M., "Marx and Engels and the Concept of the Party," *KMSPT* 3: 161-185. "The Paris Commune and Marx's Concept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KMSPT*, 3: 565-84. *WSMC* Vol. 2, p. 431. 재인용.

의 억압적 기구에 대해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1848~51년의 격렬한 제국투쟁을 경험하면서 국가란 특정계급의 보호수단을 위한 억압적 장치라는 사실에 도달하여 이는 오직 과도기 시기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파리콤뮌은 실패로 끝났다. 콤뮌의 실패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社會主義로 가는 방법으로서 격렬한 폭력적 革命的 방법과 Pt독재 이론에 의문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마르크스는 미출간된 서한에서 의회나 노조에 다수파가 민중이 된다면 평화적 방법으로 社會主義로의 전환이 가능하리라는 애매한 암시를 하였다.²⁹⁾ 마르크스 사후 1890년대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적 노동정당이 자라나고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가면서 Pt독재 이론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자는 수정론을 강조한 獨逸의 사회민주주의자였던 E. 베른슈타인이었다. 그를 위시한 점진적 사회주의자들은 Pt독재의 용어를 거부하고 훨씬 약화된 의미로 Pt권력, 또는 民衆의 비례대표 선출을 선언하였다. Pt독재의 개념은 대신 덜 발달된 나라들, 러시아와 동유럽의 제국가의 혁명적 左派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사회주의 운동이 사회민주적 개혁파와 共產主義派로 분열되면서 Pt독재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레닌은 국가권력의 문제는 1891~1917년 동안엔 덮어두고 있었다. 다만 막연히 地下투쟁의 기간동안 黨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해 왔고 국가권력을 쟁취한 이후에는 부르조와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Pt독재가 중요하리라 본 듯하다. 막상 1917년 7월에 권력의 문제가 중요한 논제로 거론되자 레닌은 종전의 부하린의 分權의인 국가 형태의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부하린은 帝國主義에 대한 논의에서 레닌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국가의 강권력의 폐지를 논하였다.

29) Marx K. and F. Engels, "Briefe an A. Bebel, W. Liebknecht, K. Kautsky." WSMC, 2: 431.

금융자본은 현대국가내의 모든 중앙집권화된 조직과 기구속에 그 힘을 응축시켜 있고, 민주적이거나 自由主義의인 성분조차도 근대제국주의의 하에선 자립성을 상실하였다. ... 계급적 대립의 원리는 극에 달하여 있다. 여기다가 계급보다 더 우위에 군림하는 ‘국가’라고 하는 神話의 존재는 사라지고 국가는 모든 생산의 직접적인 기업주이며 동시 조직자가 되었다. ... 제국주의 전쟁의 학살행위는 民衆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철저히 파괴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다.³⁰⁾

부하린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적대적인 분석은 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레닌으로부터 비로소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더 이상 계급에 대해 中立의이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강압적인 감독교구이며 부르조와의 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독점을 통해 大衆을 더욱 더 착취한다는 주장은 당시에 크게 설득력있게 들렸다. 이 지점에서 레닌은 Pt독재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조금 늦추었다. 그의 태도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유명한 「국가와 혁명」(1917)의 저술에서였다.³¹⁾

원래 국가가 계급의 이익에 종속된다는 주장은 힐퍼딩의 금융자본이론에서 개진된 바 있었으나 부하린의 논의는 一次대전 상황하에서 더욱 反國家的인 계급혁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에 비해 레닌의 국가이론은 국가의 사회학적 이론에 의거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당면한 실천적인 필요와 상황에 적응을 위해 수정·변형한 것이었다. 一次대전으로 인하여 러시아 부르조와지들은 더욱 더 국가기구에 의존하려는 추세를 보였고 자본주의는 점차 국가독점적 유형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엥겔스의 국가의 정의를 따르면서 논하기를,

“국가란 사회의 산물이요, 사회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계급의 갈등과 대립에 의해 분열되어 있다고 했다. ... 또 국가란 이같은 계급대립을 약화시키고 질서를 갖고 오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그 권력은 사회속에

30) Bukharin, 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Lndon, 1929). p. 160, 167.

31) Harding, N., *op. cit.*, II: 110;

서 나오나 사회 위에 존재하며 사회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했다.³²⁾

그러나 레닌은 1917년에 태도를 바꾸어 이를 부정하였다.

“엔겔스의 논리는 계급반목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왜곡하고 있다. … 그의 말대로 계급을 화해시킬 수가 있다면 국가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가란 계급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지배의 기구이다. 즉 피지배계급의 저항의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지 대립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다음 1917년 당시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바로 “국가란 계급의 협조를 추진하는 존재”의 이론에 근거하는 뽀뽀 부르주와적 성향을 지닌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그는 혁명의 목표에 관해서 말하길,

만일 국가가 사회밖에 존재하여 계급지배를 영구화시키는 기구라면 피지배 계급의 해방은 폭력적 혁명없이 불가능할 것이고 모든 국가의 기구, 즉 군대, 감옥, 경찰, 관료, 의회 등이 분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³³⁾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매우 유토피아적인 共產主義 社會를 그리고 있었다. “국가는 지금껏 계급반목의 산물로서 국가가 커질수록 계급의 반목도 커진다. 그러므로 계급반목의 해소를 위해서 社會主義 革命은 반드시 국가를 쳐부수어야 한다. … 또 모든 관리는 임금노동자의 수준으로 지불받는다.”³⁴⁾고 했다.

Pt독재에 관해서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Pt독재가 필요하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³⁵⁾ 그러나 국가를 민병대나 소비에트기구가 무장하여 부순다면 이것 역시 억압적 강제세력이 아닌가에 대해 레닌은 “콤뮌에서의 무장은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므로 콤뮌은 국가가 아니다. 그

32) Engels, F.,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pp. 177-78, Sixth Edition, (1894)

33) Lenin, V. I., *SW. II*: 242; *State and Revolution*, Chap. 1

34) *CW*. 24: 169-70. 62-69.

35) *State and Revolution*, Chap. : 2.; *SW. II*: 300-305.

근거는 민병대는 선출된 것이고 그 목적은 계급을 철폐하고 국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⁶⁾

라고 했다. 이처럼 당시의 레닌에게 Pt독재란 강제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조와지나 반동파에겐 강제력을 의미하나 Pt에겐 자발적인 환영을 얻을 것이고 특히 Pt는 그 독재의 일시적 행사에서 전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中心된 사상이었다.

컴문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새 컴문사회는 민중 그 자체이며, 전체민중이며 특권적 일부도 괴리된 일부도 아니다, 고로 Pt는 국가의 권력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부르조와의 경제적 기초가 손상당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제적 통제권을 몰수하기 위해 일시적인 독재와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 이행기는 Pt에 의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때때 부르조와는 자기기만 때문에 또 資本에 의한 압력 때문에 독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농민층이나 소농층은 Pt층의 편에 설 수는 있으나 革命을 성취한 이후에만 다시 말해 Pt독재 이후에 올 사회의 이득을 충분히 인식한 이후에만, 이에 가담할 수 있다고 했다.³⁷⁾ 이때만 해도 레닌은 Pt독재 시기에 농민층에 대한 강제력의 사용은 절대 금지하였고 사회주의로의 이행방법에 매우 낙관적 태도를 가졌다.

마르크스는 Pt독재는 사회주의 시기가 아니라 오직 과도기임을 못박았는데 그는 특히 그 기간이 짧아야 할 것과 도덕적 가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다.³⁸⁾ 189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Pt계급이 의회내의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Pt독재의 무용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마르크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³⁹⁾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레닌은 革命的 분위기가 러시아에 무르익어감에 따라 「Pt

36) *Ibid.*,

37) Harding, N., *op. cit.*, II: 211-212.

38) Draper, H., “Marx and the Dictatorship of Proletariat,” *KMSPT*. pp. 289-315.

39)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61). p. 146.

독재」의 이론을 더욱 확대하였다. 처음에 콤문의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로 보았으나 10月革命과 내란을 거치면서 Pt독재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임을 못박고, 이는 사회주의를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社會主義를 보호하기 위해 國家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하게 존재할 필요성을 논하였다.⁴⁰⁾ 이때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Pt독재가 언제 끝나는지? 둘째, 국가권력을 인수 통합하고 난 이후에 누가 그 권력을 계승할 것인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인지? 새로운 계급인지? 셋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나 다수파를 民衆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지? 넷째, 새 국가에서 권력의 계승방법은 어떤 것인지?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만일 「Pt독재」가 Pt민주주의를 위한 의미라면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독재정은 긴급사태 때문에 생겨나므로 반드시 임시적이어야 하며, 헌법에 근거를 가져야 하며, 강제력의 방법으로 헌법수정이나 근본적 입법조치를 행할 수는 없으며, 독재정 이후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존재가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⁴¹⁾ 그렇다면 사회주의 國家수립의 준비를 위한 긴급 임시상태에서 Pt독재가 과도기로 인정받으려면 특정계급이 의거한 생산관계, 사회관계, 태도, 가치관을 폐지하는 일 이외에도 Pt독재와 국가 사이의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Pt독재의 미명하에 소수자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레닌은 「국가와 革命」에서 보인 유토피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재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조건과 정의없이 모순되게 사용하고 있었다. Pt가 사회를 국가에 종속시키고 그 전위부대가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가득하였다. 그 뿐 아니라 Pt독재와 국가를 동

40) SW. III: 230-36, "Economics and Politics in the Era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Oct. 30, 1919)

41) Bender, F. L., "The Ambiguities of Marx's Concept of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Transition to Communism's,'" *op. cit.*, KMSPT., pp. 355-383.

일시할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 모든 위험은 사회주의 국가수립의 과정에서 특히 경제통제권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를 둘러싸고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IV. 「프롤레타리아獨裁」 이론과 현실적 적용

1. 1917년 10월革命과 「Pt독재」

1917년에 레닌은 이상의 국가이론을 사회학적 분석으로 더 나아가지는 않고 당면한 러시아革命의 성취를 위해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갔다. 당시 러시아의 2月革命은 民衆과 自由主義者 및 온건파 사민당과의 세력연합에 의한 二重主權의 애매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양세력은 2月과 10月 사이 8개월 동안 전쟁 목적과 산업경영권의 논제를 둘러싸고 점차 의견대립을 겪으면서 분열하기 시작하였다.⁴²⁾ 레닌은 이 사이 ‘도시노동자에게 산업통제권을! 農民에게 土地再分配를! 兵士에게 종전을!’의 약속을 내걸고 二重主權의 체제를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 체제와 동일시함으로써 2月革命 政府의 정당성을 침식하여 갔다.⁴³⁾ 44) 二重主權의 의미는 입헌자유주의자와 소비에트의 공동통치를 의미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세력의 시각은 크게 달랐다. 民衆적인 소비에트의 입장은 제1차적인 통치권은 소비에트에 있으며 임시정부는 이를 위임받아 전쟁을 수행하고 경제·치안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여겼다. 소비에트는 권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개입, 감시 혹은 감독

42) 이정희, “1917년 러시아 10월革命과 산업노동자 계급의 정치의식,” 오주환의 저, 「혁명, 사상, 사회변화」 (경북대출판부, 1991), pp. 149-188.

43) SW. II: 37-65. “Dual Power”; Ferro, M., (황인평역), 「1917년 10월혁명: 러시아혁명의 사회사」. (거름, 1983). pp. 23-59.

44) 레닌의 4月 테제의 내용중 특별한 중요성을 띠는 부분은 경제적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는 1905년에 이미 부르주아혁명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2月혁명 이후부터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하며 이것은 곧 경영권의 노동자인 수를 뜻하였고 이에 당시의 불세비키들 내에서조차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권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비해 입헌자유주의자와 온건사회민주당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민중의 지지에 의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차적인 경영권이 정부에 있다고 보았고, 소비에트를 정부와 민중의 연결통로, 의사수렴, 전달의 기구로 보고자 하였다. 4월 당시에 레닌은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反온건파, 反부르조와적인 정치세력의 규합을 추진하였지만 소비에트中央, 市지부내에서 그의 구호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끈 상태는 아니었다. 더구나 Pt독재의 개념은 널리 알려진 상태도 아니었다.⁴⁵⁾ 소비에트조직의 지도부나 노조지도부, 民兵隊 지도부들에서는 아직도 멘세비키나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이 급전환을 맞이하게 된 배경은 1917년에 점증하는 경제적 위기와 一次대전에서의 절망적인 패전의 분위기가 찾아오게 된 점이었다. 실로 一次대전에 관해서 볼셰비키와 온건파들의 해석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볼셰비키들이 보기에 一次대전은 민족간의 국민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급간의 전쟁,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전쟁, 제국적인 전쟁이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노동자·농민을 더욱 착취하게 되는 지배층의 권력유지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온건파에게 一次대전은 애국전쟁이요, 진보적인 시민전쟁이요,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였다. 또한 2월혁명을 일으킨 러시아가 자국의 自由를 보존하기 위해, 革命政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범게르만주의의 권위적이고도 독재적인 체제에 대항하는 서구자유주의적 국가로부터 2월革命정부를 인정받고 내부의 분열을 막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에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이미 도시노동자와 농촌농민들 사이에서는 염전사상이 팽배해졌으나 反戰시위는 자제하고 있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兵士소비에트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레닌은 4월에 전쟁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45) Mandel, D., *The Petrograd Workers and the Fall of Old Regime* (New York, 1983).

전쟁의 연장은 혁명의 성과와 그 발전에 커다란 위험을 안겨다 줄 것이다. ... 러시아에서 임시정부로의 권력이양은 적어도 러시아에 관한 한, 전쟁의 성격과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여전히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부이기 때문에 ...⁴⁶⁾

그에 따르면 신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와 구러시아 사이에 있던 비밀조약을 밝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협의없이 러시아 資本主들에게 中國, 페르샤, 터키 및 오스트리아를 마음대로 훔쳐낼 수 있을 것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레닌의 분석구도에서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묶여 있는 자본가 계급이 국제차관, 이권할양, 군수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수십억불의 이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토합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조약상의 비밀을 감춤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의 진정한 목적에 관해서 속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⁷⁾

4月の 볼셰비키당의 7次 전러시아 대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혁명적 방어전”은 위선이며 국제주의나 사회주의와 명백한 결별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전쟁의 종식은 강제적인 평화나 병사들의 일방적인 숙전에의 거부나 교전국가들 중의 어느 한 나라에 의한 적대감의 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인 평화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민주적인 평화는 바로 정치권력이 민중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양되고난 이후에야 성사되리라고 선언하였다. 레닌과 볼셰비키黨의 반전 선전은 참으로 커다란 효과를 갖고 왔다. 4月 20일에 전쟁지속과 영토합병을 위한 공격전을 약속한 自由主義者 밀류코프 外相에 대한 대규모의 도시민중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위는 2月혁명 이후의 첫 번째의 정치위기를 갖고 왔으며 노동대중에게 정치의식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⁴⁸⁾

46) *Pravda* No. 44 (4月 29日, 1917); *CW*. 24: 270-73; *SW*. 2: 92.

47) *SW*. II, pp. 93-94.

48) 이정희, (1991), *op. cit.*, pp. 166.; Geyer, D., *Russian Revolution* (Leamington Spa, 1987), pp. 42-48. 一次대전의 성격규명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의 분열에 대해선 특히 다음을 보라. Lenin, *CW*. Vol. 15: 196-198. "Bellicose Militarism and the Anti-Militarist Tactics of Social Democracy,"

1917년 내내 온건파 정부와 소비에트 조직내의 민중의 어색한 협조체는 각종의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관한 의견조정의 실패였다. 이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제규제의 권한, 전쟁지속의 여부, 土地再分配의 여부, 헌법제정을 위한 의회의 소집의 여부 등의 논제를 둘러싸고 더욱 더 격렬한 분열과 계급적인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차츰 사회가 2月혁명 당시의 일시적인 계급화해의 분위기가 무너지면서 또 다시 1914년 7월의 대붕기 상태와 같은 “上部層 對 下部層의 분열과 대립”의 위험한 양상이 되살아났다.⁴⁹⁾

사회가 다시 상·하부층으로 쪼개어질 때 레닌의 4月 테제의 그의 구호였던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표현을 다시 「권력을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의 소비에트!」로 바꾸었다.⁵⁰⁾ 이 사이의 변화는 그의 저서 「國家와 革命」에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개념의 도입이었다. 소비에트會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그의 테제는 4月 당시엔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 채, 막연히 과격한 상징의 뜻으로만 존재하였다. 온건파 사회주의자나 소비에트지도자들 조차도 연립내각의 성립중 권력의 직접적인 참여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6월 전선에서의 대참패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 또 8月말의 군부우익의 쿠데타의 시도는 연립내각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에트조직 자체내에서도 분열을 갖고 왔다. 8月말부터 소비에트市회의 선거에서 차츰 소비에트권력의 구호가 좀 더 강렬한 흡인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레닌은 기민하게 이에 적응하여 새 이론적인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 前章에서 일부 언급하였듯이 國家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윤리적 사상의 실체도 아니며 특정한 발달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산물이며 우세한 경제적 집단이 만들어 낸 보호막이라는 이론에 의거하여 國家의 개

49) Mandel, D., *op. cit.*, pp. 158-176.; Keep, J. H. L., *The Russian Revolution: A Study in Mass Mobilization* (London, 1976), Chap. 4-5.

50) Shkliarevskii, S., *op. cit.*, pp. 298-368.

념을 과격하게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란 계급의 적대를 화해시키는 초월적인 기구가 아니다. ... 이같은 해석은 마르크스의 본래의 사상을 왜곡시킨 것이다. ... 국가는 계급이 타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기구이며 멘세비키의 계급화해 가능성의 사상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 고로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오직 기존의 권력의 기구를 파괴하고 혁명을 위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⁵¹⁾

그는 소비에트기구가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행할 기구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소비에트회의체의 성격에 새 의미를 부과하였다. Pt계급의 독재는 계급적 사회가 계급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일 뿐이며 국가의 마지막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²⁾ 그럼으로써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극도로 확대해석하였고, 계급투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히 2月 임시정부와 두마는 가면일 뿐이며, 부르조아독재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7~8月の 기근과 농촌에서의 土地갈망의 물결은 민중생활을 더욱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갔고 경제를 붕괴상태로 치닫게 했는데 이는 레닌의 계급투쟁의 선언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였다.⁵³⁾ 이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제규제권에 관한 것이었다. 레닌은 그가 제시한 미래 사회주의사회(혹은 질서)에서 모든 강제수단은 사라지고 아래서부터의 자치적인 권한을 통해 단순화된 경제기구만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산업을 자치적으로 통제(Workers' Self-Control) 하리라고 선언하였다.⁵⁴⁾ 그의 규제안에 관한 선언에서

51) SW. 2: 241-2, 261; *State and Revolution*, Chap. 2: Sec. 3.

52) Gill, G. J., *Peasants and Government in the Russian Revolution* (1970) pp. 132-170. 여름동안 농촌에서의 대위기와 폭동의 전개는 레닌의 「소비에트 권력」을 「프롤레타리아와 민중의 소비에트권력」으로 바꾸는 직접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53) 이정희(1991), *op. cit.*, pp. 173-175. Brinton, M., *The Bolsheviks and Workers' Control* (1975) i ~ iii.; Selnitskii, V., *Massy v borbe za rabochii kontrol.*, *Mart -iiul 1917 goda*, (1971) p. 200.

54) CW. 26: 264-25; SW. 2: 430-431.

1. … 생산과, 비축, 판매에 관한 노동자의 관리는 …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1년 1만 루블 이상의 생산품을 가진 모든 산업, 상업, 금융, 농촌 및 기타 기업의 경우에 모두 도입될 것이다. … 노동자 관리는 모든 노동자와 고용된 고용인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 그들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될 것이며 … 선거기록부는 정부와 지역 소비에트대표회에 전달된다. …⁵⁵⁾

노동자 관리에 관한 레닌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상황의 결과에 적응한 것이지 미리 상황을 제시한 구도는 아니었다. 6~8월 사이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산업 경영권의 침해 내지 감독 이상의 직접개입의 요구는 사상의 결과라기 보다 계급간의 불신이 적개심으로 바뀐 상황의 결과였다. 노동자 관리와 레닌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노동자들의 산업경영에의 우발적인 개입현상 속에서 그의 경제관은 구조자체의 과격함과는 달리 노동대중의 그것보다 훨씬 온건하였다는 사실에서 일부 증명된다.⁵⁶⁾ 레닌은 소비에트 감시와 노동자 관리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되리라고 보았으나 노동대중에게 궁극적인 목표와 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더 과격화의 방향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레닌은 다시 노동대중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急進的인 형태의 관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그의 구호는 매우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다. 아문든 Pt독재에 관한 그의 구호는 계급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된 페테스부르크의 노동대중에게 먹혀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9월의 市두마, 소비에트선거에서 볼셰비키에게 다수표를 던졌다. 공장의 하부조직이 상부의 행정적 통제로부터 이탈하고 산업경영에 개입하려는 필사적이고도 공격적인 성향은 마침내 볼셰비키와 노동자의 동맹을 가능

55) CW. 25: 44-45.

56) Avrich, P.,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Workers' Control," *Slavic Review*, 22: 1 (1963), pp. 47-63. Shkliarevskii, *op. cit.*, Chap. 10; Rabinowitch, A., "The Petrograd Garrison and the Bolshevik Seizure of Power," in B. Nichlaevsky, ed., *Revolution and Politics in Russia* (Bloomington, 1972), pp. 172-191.; Geyer, D., "Bolshevik Insurrection in Petrograd," in R. Pipes, ed., *Revolutionary Russia* (Cambridge, 1968), pp. 209-228.

케 하였고 10月봉기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⁵⁷⁾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뜻은 정부의 행정·관료기구나 생산경영에 대중과 선출된 대표들의 직접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소비에트나 민병대, 노동자위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 직접참여를 약속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이미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생산이 대규모화, 집중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Pt가 집단적으로 경영하기가 용이하며 보통교육을 통해 생산관리, 회계, 경영, 분배의 과정 자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리라 믿었던 탓이었다. 아마 10月봉기 직전까지 레닌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文化的인 수준을 크게 낙관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사실 모든 은행과 기업연합을 국유화하고 상업적 비밀을 폐지하고 노동자 관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전국민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노동 대중의 작업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소비에트가 권력을 쥐게되며 부르조와지와의 연립했을 때보다 더욱 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사회주의화된 경제력과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애국적으로 경제기초를 복구시킬 것이다.⁵⁸⁾

라고 말하였다.

2. 新生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 Pt독재의 변화

10月봉기의 성공은 Pt의 권력장악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이지만, 소비에트조직에 의한 경제통제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 독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로서 크게 다음을 들었었다. 첫째, 그것이 장차 계급의 구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지배계급이 의존하고 있었던 생산관계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셋째, 그 다음 제 사회관계를 파기하고 思想자제도 혁명화하기 위해서라고 못박았다.⁵⁹⁾ Pt독재는 한편에서는 Pt민주정의 목표를 가

57) SW. II: 213-4,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58) Bender, F. L., "Dictatorship of Proletariat, ..." *op. cit.*, KMSPT, pp. 361-362.

59) MECW, IV: 505, 참조.

지기 때문에 폭정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급의 독재가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주의적 변형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그 조건이란 Pt계급과 국가와 또 Pt계급과 사회주의 경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일 Pt가 직접통치하고 관리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이념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민주적인 선택을 질게 띄울수록 Pt민주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르크스 자신은 프랑스의 내란과 파리공문 때까지 Pt독재의 필요성과 부르주아와 모든 지배기구나 중앙집중적인 권력을 탈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지만⁶⁰⁾ 그 결과가 국가주의적인 것이 되는지 무정부적인 성격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고 애매모호하였다. 그러므로 Pt독재 수립의 첫 단계가 지난 후, Pt독재의 정치형태와 전위부대의 역할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레닌이 고안해 내어야 했던 것이다.

10월봉기 직후 Pt독재하에 있을 권력남용의 가능성이나 방지책, 또 Pt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였다. 더더구나 마르크스 체계내에서 경제관리의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제적 결정권한이 집단적 결정인지, 黨, 행정의 결정인지도 언급이 없었다. 레닌 자신도 10월의 봉기후 볼셰비키가 권력장악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사회화와 국가통제에 의한 국유화의 구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불확실하다.) 산업경영권의 장악이 Pt계급의 집단적 결정인지 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인지 黨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지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土地國有化의 선언은 강령으로만 존재하였고,⁶¹⁾ 농촌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미이르(Mir)가 다시 부활되면서 新生政府의 토지사용권 개입에 저항하였다. 도시에서는 공장내에서 노동자의 관리(Workers' Control)가 자의적으로 행해지면서 생산과 유통의 질서가 점차 무정부적인 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때에 레닌과 볼셰비키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주의적 정당들 사이에서의 권력투

60) SW. II: 426, "Decree on Land,"

61) Harding, N., *op. cit.*, II: 202.

쟁이었다. 그때까지 레닌은 콤뮌을 한번도 언급치 않았고 사태를 묵시하였다. 간혹 그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수립하려는 국부적인 노력이 약간 시기상조이며, 유토피아적인 오류일지 모른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⁶²⁾ 그는 부르쵸와지에 대한 승리만으로 공산주의가 도래하지 않으며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제국주의가 패배하여야만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되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차츰 콤뮌보다 좀더 강화된 노동훈련, 1인경영주, 강력한 정부 등의 필요성을 논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점에서 그의 Pt독재이론은 다시 1914~1916년 사이의 논리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띠었다. Pt독재사상을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한 것은 1918년 10월부터였는데 이때는 사회주의적 제정당 사이의 피나는 권력암투에서 볼셰비키가 일차적으로 승리하고 난 직후였었다.⁶³⁾

그러나 이 무렵부터 그의 저술과 사상을 자세히 보면 그는 Pt독재 용어를 콤뮌의 수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소비에트 체제의 수립을 논할 때에 사용하는 수가 많았다. 즉 세계를 부르쵸와독재와 Pt독재의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뉘고 그 사이의 중간형태를 일체 부정하였고 이 흑백이론 속에서 콤뮌국가의 용어는 사라져 갔다. 그는 콤뮌은 궁극적 질서이기기는 하나 유럽혁명의 도래까지는 불가능하며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다.⁶⁴⁾ 또한 1918년 3월 이후 레닌은 소비에트기구내의 선거권과 노동조합내의 선거권제를 폐지하고 노동자관리 운동을 빠뜨리 부르쵸와적인 것으로 탄핵하고 극복되어야 할 방식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원래의 Pt독재의 개념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일이었다. 이때 레닌이 Pt독재를 중지부시킬 시기는 미래의 세계자본주의 국가의 붕괴라고 말한 것은 흥미있는 논의이다. 이것은 그가 다시 1914년의 이론분석의 틀로 되돌아가며, 1917년 「국가와 혁명」에서 보인 유토피아적인 이론을 포기함을 뜻한다. 이처럼 다시 Pt

62) *Pravda*, Oct. 11, 1918 또는 *CW*. 28: 105-13.

63) *SW*. III: 98-112.

64) *SW*. III: 98, "Theses and Report on Bourgeois Democracy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March, 4, 1919.; *CW*. 28: 457-74.

독재와 부르조와독재의 대립이라는 흑백논리로 되돌아가게 된 데에는 내란의 시작,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침입, 유럽의 사민당의 패배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조기 사회주의 국가수립이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된 것도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러시아에서 미래 사회주의 혁명은 Pt독재의 방법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은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제2차 코민테른의 강령에서 확고하게 나타난다. Pt독재는 이제 그에게서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세계관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이었다.

세계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와 부르조와적 자본주의 사회로 둘로만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의 유동적인 체제들은 본질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뿐이지,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임헌의회나 혹은 국민의회와 평화적인 단결이란 부르조와독재를 꿈꾸는 자들의 위선적인 속임수일 뿐이다.⁶⁵⁾

러시아의 경제적 구조는 여러가지의 구조들, 자연 농업경제, 소규모 상품생산, 사적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유형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복합형이기 때문에 단일한 형태의 이행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⁶⁶⁾ 그는 자연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전환의 핵심적인 코스로 농민과 노동자의 유대를 중시하였다. 또 그는 러시아의 농민의 계층분화 중에서 빈농·중농의 도움이 있어야만 Pt독재가 가능하리라고 파악하였다.⁶⁷⁾ 이 분석은 사실 1905년의 이론적 틀로 복귀함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빈농과 중농은 점차 도시노동자들의 지도력에 따르게 될 것이고 부농(Kulak)은 서서히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력에 의해 감소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 낙관론은 1918년 여름동안의 대기근과 농촌에서 농민들의 흑토지재분배의 요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다. 신생소비에트국가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도시민과 적

65) *Ibid.*, 109-110.

66) *CW*. 27: 335-6, *SW*. 3: 698-704.

67) *CW*. 28: 101.

군의 생계를 위한 식량확보였다. 특히 내란동안의 식량·무기확보는 볼셰비키의 생사가 달린 과제였기 때문에 강제징수는 자연히 농민층 전체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레닌의 Pt독재의 경제적 전략상의 특징은 특히 쾰부르쵸야흐의 분쇄에 집중되었다. 임금노동자와 수공업자, 貧農, 中農을 Pt계급으로 보았지만 때로는 自治的 경제활동이나 自由로운 생산활동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모두 쾰부르쵸와층으로 구분짓고 강제력을 행사하였다.⁶⁸⁾ 그러나 문제는 흑토지재분배와 지주토지몰수, 국유화로 인해 러시아 농민층이 1919~1923년 사이 전반적으로 토지소유 분포가 평준화됨에 따라 中農層이 증가하고 貧農이 감소하였고 점차 곡물 강제징수는 中農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⁶⁹⁾ 토지국유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農村에서 社會主義的인 공동생산이나 협동조합의 조직의 발달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향과 사유재산을 보호받으려는 집단적 농촌공동촌락제(Mir)가 부활하자 농업생산성 증가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변형은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⁷⁰⁾ 레닌의 Pt독재는 생산의 마비와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의 行動派 노동자, 통치기구내의 엘리트에 의한 反-볼셰비키적 행위에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곧 지방에서 자행되는 강제성과 中農에 대한 공격은 레닌에게 큰 딜레마를 가져다 주었다.

혁명에서 우리는 農民과 더불어 권력을 장악하였다. 농촌에서 계급투쟁이 아직 전개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느 의미로 부르쵸와적 혁명이었고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엄밀하게 말하여 1918년 여름부터 전개되어 왔다. ... 농촌에서 빈농위원회 조직이 강화되었고 소비에트가 선출되어 Pt계급의 지배

68) Brinton, M., *op. cit.*, Chap. I ~ III.

69) Lewin, M., *Lenin's Last Struggle* (London, 1969). 혁명초기 볼셰비키의 對農民 정책의 모순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Carr, E. H., *Foundation of Planned Economy: 1926-29*. (1967-71) Lewin, M., *Russian Peasants and Soviet Power: A Study of Collectivization* (1969).

70) Atkinson, D., *The End of the Russian Land Commune, 1905-1930* (Stanford, 1983) pp. 189-232.

권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 작금의 가장 중요한 당면한 문제는 中農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지만 이들은 안정되거나 확실히 정의된 계급이 아니다. … 또한 농촌에서 흔히 모험적 공산주의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농민층은 소비에트권력과 공산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며 오히려 공산주의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 선부른 강제력을 결코 써서는 안된다. … 처음엔 농민을 도우라, 그 다음엔 그들의 신임을 얻으라.⁷¹⁾

그러나 내란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도시에서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레닌은 정치조직 면에서는 黨기구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그는 한편에서는 쿵문의 완전한 포기, Pt독재 기간의 무기한 지속, 러시아 모델의 보편적 성격을 선언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Pt계급과 노동자 대중과도 구별지었다. 1919년 봄부터 소비에트 조직이 지역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단위로, 즉 산업, 농촌, 공장 등의 단위로 재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Pt계급의 정의는 노동대중에서 나온 계급적 성분보다 혁명에 대한 헌신성, 黨性에 의해 내려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Pt계급 자체도 엘리트 전위부대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에 종속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⁷²⁾ 이것은 계급성보다 黨性的의 우위를 결정짓는 것이었다. 계급성에 대한 논의에서 레닌이 가장 편잡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노동조합의 기구에 대한 黨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데서 나타난다. Pt독재 시기엔, 노동조합은 자치권을 갖기보다 黨과 국가와 군대의 보완기구로 변화되어야 한다.

Pt독재 시기엔 노조는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목적을 위해 노동계급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집단을 분류하고 배속시키며, 궁극에 가서는 국가의 단일한 경제적 계획의 성취에 이

71) 8次전당대회보고서, 1919, March 23, "Report on Work in the Countryside," SW. 3: 139-153, CW. 29: 175, *Pravda*, Nos. 62, 64, 70, 71, March, 1919.

72) Shkliarevskii, *op. cit.*, Chap. 8-9.; CW. 30: 48, 274.; Harding, N., *op. cit.*, II: 232.

바지해야 한다.⁷³⁾

이제 Pt독재는 Pt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있는 전위대에 의해서만이 수행 가능하다고 말하였다.⁷⁴⁾ 레닌의 反-노조주의의 정책은 많은 일반 노동자와 노조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마 소비에트 정부의 딜레마는 노동자와 농민 자체를 통제할 수단으로 黨의 권한밖에 없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것은 곧 1917년의 「국가와 혁명」에서 나타난 노동자민주주의를 포기함을 의미하였다. 볼셰비키는 1920년 봄부터 그 사회적인 지지세력을 급속히 상실해 갔다. 혁명 당시의 페테로그라드의 노동자들과 의식적 지도자들은 내란 동안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식량확보를 위해 농촌으로 파견되어 가거나 黨의 여러 조직 기구속에 선발·배속됨으로써 노동자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표현할 집단은 거의 줄어들었다. 노동자들과 黨內의 반대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혁명시의 약속 사이의 괴리는 깊어만 갔다.⁷⁵⁾ 만일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되면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는 취약해지고 생산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그 다음엔 새로운 독재와 강제력의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었다. 당내에서의 관료주의화나 노동조직의 비민주화에 극력 저항한 노동자반대파의 지도자였던 A. 콜론타이는 선거의 원칙을 복귀시킬 것과, 黨內의 일을 공개하고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하부당원의 목소리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레닌이 4월에제로 되돌아 갈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黨員의 가입에서 지식인 출신보다 노동자 출신을 늘이는 것은 찬성하나 자율성이나 파당조직의 존재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1921년 3월 크론스타트섬에서 드디어 水兵, 부두노동자들에 의해

73) Harding, N., *op. cit.*, II: 257, 이 논의는 1920년 5월 트로츠키와 톰스키 사이의 격렬한 논쟁 중에서 나왔는데 이때에 레닌은 중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노동자-농민의 연대가 소비에트 국가 내에서 필수적이라 말하고 연대조직 중의 관료층에서 노조가 왜곡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레닌은 黨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어떤 자율성도 허용치 않았다.

74) CW, 33: 191.

75) Kollontai, A., *The Workers' Opposition: Reading* (Solidarity Pamphlet.) 참조.; CW, 32: 430.

反-불세비키, 反-공산주의의 폭동이 폭발하여 소비에트 신생국가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⁷⁶⁾ 레닌은 10次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파당정치, 분파활동을 反動的인 것으로 선언하였다. 크론스타트의 반란은 레닌에게 커다란 충격과 좌절감을 주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농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NEP정책을 도입할 것을 선언하면서도 黨의 기구에 보다 국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을 강화시켰다. 당시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가 黨에서 이탈하고 도시노동자가 신생정부에 적개심을 나타내자 레닌의 Pt독재는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독재는 전 도시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었다. 대신 그것은 黨의 과제이다. 사회주의의 실현은 프롤레타리아의 참여없이 계급의 활력적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전위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⁷⁷⁾

이로써 Pt독재는 이제 “Pt에 의한 부르조와에 대항한 독재”가 아니라 “Pt를 위한 黨의 독재”라는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黨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만일 국가의 기구가 자율성을 갖고 黨과 분리된다면, 또 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中立的인 위치에 남아있게 된다면 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세비키당은 금방 통제수단과 지지기반을 잃게 되리라는 것과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게 된다면 1921년 봄 당시의 상황은 무정부주의자나 빠르게 부르조와를 자국할 것이 틀림없었다. 이로써 레닌은 Pt독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國家의 행정적 中立을 포기하고 모든 기구는 黨과 결합하며 더 나아가 國家의 최고집계권 조차도 黨이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21년 봄부터 인민최고위원회(내각)와 소비에트대표회를 黨에 종속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

76) Avrich, P., *The Kronstadt in 1921* (New York, 1970). pp. 12-35.

77) CW. 32: 20, 61, 31, 111, 274.

고⁷⁸⁾ 이로써 Pt독재 사상은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3. 레닌의 마지막 노력

레닌은 내란동안 Pt전위대에 의한 Pt독재를 선언하면서도 노동자-농민의 연대가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본조건이 된다는 점, 노동자 조직을 국가의 기구에 종속시키면서도 관료화, 형식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1921년 크론스타트 노동자, 수병의 반란과 10次 전당대회 이후 큰 갈등에 부딪혔다. 내란이 끝나고 反革命 세력이나 부르조와 세력이 분쇄되고 나서도 볼셰비키의 취약한 기반은 전혀 향상되지 못하였다. 한때 고도의 계급의식을 보여 주었던 Pt는 내란기에 거의 궤멸되었고 黨기구 속에서 자율권이나 민주적 성격을 상실하였다. 이때의 모든 볼셰비키들은 黨이 극도로 소외되고 약하며 붕괴 직전에 있다는 초조감에 놓여 있었고 내란 때보다 더 위협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10次 전당대회에서 중앙집권적인 黨의 하향식의 권위에 대한 선언은 소비에트 신생국가에서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중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하였다.

전당대회는 지금부터 다른 모든 종류의 강령이나 계획에 의거한 집단들(노동자 반대파, 민주적 중앙집권파들)이 해체될 것을 엄명하며 黨 결정에 어떠한 불복종이라도 생길 땐 黨에서 무조건 추방하기로 한다.⁷⁹⁾

Pt계급을 정의하면서 그는 다시 1900~1903년의 사상으로 복귀하였다. 즉 노동자는 스스로 사회주의를 향해서 발전되어 가지 않으며 사회주의적 사상은 반드시 급진적 인텔리겐차의 손에 의해서 나오며 운동의 목표도 이들이 정해야 한다. Pt란 노동계급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

78) Rigby, T. H., *Lenin's Government. Sovnarkom, 1917~22* (Cambridge, 1979), pp. 99-160; Schapiro, L. B., *The Origins of Communist Autocracy: Political Opposition in the Soviet State: First Phase, 1917~22* (Cambridge, Mass., 1955), pp. 314-41.

79) CW. 32: 244.

나라 목적이나 행동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자의 Pt의 성분은 黨이 심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⁸⁰⁾

레닌이 NEP정책을 택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NEP시기엔 Pt독재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저 추상적이고 애매한 강령으로만 타났다. 왜냐하면 NEP는 경제에서 부르조와적 요소와 전문가, 1인경영제를 도입하였고 행정기구만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⁸¹⁾ 1921~23년 동안 그는 黨을 대숙청하는 하부조직에서 의식성, 신념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와 黨내의 파벌주의에 경계해야 하는 서로 상호갈등적인 목적에서 엄청난 난관을 맞이하였다.⁸²⁾ 하위로 내려 갈수록 黨의 기구는 더욱 행정적·관료적·중앙집권적으로 변해갔고, 노동자와의 직접 접촉의 기회는 극도로 줄어들었다. 행정기구의 수는 비대해지는 반면 질은 더욱 떨어지고 기능은 일상화해가는 데에 그는 당황하였다. 국가기구보다도 黨이 우월한 권한을 가져야 함을 주장했던 레닌은 黨 자체의 관료주의적 타락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구상하였다. 첫째, 끊임없이 黨의 文化수준을 향상시킬 것과 헌신성, 과오를 줄이기 위한 자체 숙청을 강조하였고, 둘째, 黨을 비판하고 감시할 조직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소수이나 헌신적이며 부패하지 않으며 혁명을 고수하려는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를 ‘노동자-농민 감시단’(The 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 Rabkrin)이라고 칭하였다.⁸³⁾ 말년의 레닌의 이같은 비판적인 시도는 자주 노동자-관료들을 놀라게 하고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같은 기구가 턱없이 결핍되어 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 '적지만 질이 높

80) Harding, N., *op. cit.*, II: 277-78.

81) CW. 32: 127; CW. 33: 224.

82) 12차전당대회보고서 中 기념연설에 나타났다. SW. 3: 709-714, CW. 33: 488-489. Pravda, No. 16, Jan. 25, 1923.

83) "Better, fewer but better," SW. 3: 714-727.

을수록 낫다'(='양 보다는 질')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⁸⁴⁾

그러나 文化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레닌의 태도는 이미 일상화 되어가는 黨기구의 변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들 수 있었다. 첫째, 레닌은 1921년 크론스타트 반란 이후 큰 타격을 입어서 자주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둘째, 그는 黨內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과의 교류가 극히 감소되어 있어서 그의 주장이 제대로 전하여졌던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⁸⁵⁾ 끝으로, 레닌 자신이 갖고 있던 초조한 기질이 黨의 비판을 허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가 만들 것을 제안한 자아비판의 기구가 黨외부가 아니라 黨內에서 존재하는 기구임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모순이었다. 이 비판과 감시의 기구는 그가 의도했던 바였던 黨의 순수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全體主義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고 왔다. 이리하여 레닌의 Pt독재 이론은 콤문수립에 기여한다는 1917년의 유토피아와는 달리 권력분산에 대한 편집적인 거부감 때문에 권력의 집중과 黨의 최고 우월성에 토대를 둔 새 권위적인 국가수립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V. 結

이상에서 우리는 레닌의 사상체계 중에서 Pt계급, 전위부대, 黨, 국가, Pt독재, 콤문, 사회주의질서 등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레닌이 사용한 이 개념 등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의 분석틀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상황에 적용할 때, 개념정의가 애매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더 혁명적이고 과격한 해석의 방

84) Lewin, M., *Lenin's Last Struggle*, pp. 31-42.; Harding, N., *op. cit.*, II: 291-3.

85) Rigby, T. H., *op. cit.*, pp. 220, 240, 484-494.

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대한 분석은 추세를 파악한 점은 정확하나 변화의 속도와 농민 계층 분화를 너무 과장함으로써 빈농과의 동맹을 과신하였다. 내란 이후 볼셰비키정권과 농민층과의 대립은 여기서 기인하였다.

둘째, 階級的 정의에서 노동자의 성분보다 意識과 자발성, 헌신의 요소를 더욱 중시하였다. 그의 전위부대(Vanguard of Proletariat)의 개념은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계급운동을 지도한다는 귀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 이전 전제정의 혹심한 탄압의 시기에 적용되었을 때는 전술상의 큰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나 혁명 이후엔 Pt계급과 黨 사이의 깊은 괴리를 갖고 왔다.

셋째, 레닌의 國家의 개념은 여러 번 변화하였다. 1914년 제국주의 이론에서의 국가와 1917년의 국가부정적인 태도가 차이난다. 1919년 봄부터 다시 국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Pt독재가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소비에트의 기구는 黨에 결합되거나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서서히 Pt독재의 의미는 이 속에서 사라져 갔다.

네째, 내란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에서 黨이 가장 중요시한 과제가 권력통합 이외에 생산성의 증가, 생산의 中央集中化, 대규모조직의 지향, 노동훈련 등을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 조합운동, 노동자의 자율권, 소규모의 작업장, 농민층의 생산의욕을 위촉시켰다. 생산관계보다 생산력을 앞세우려 했던 볼셰비키의 좁고 성급한 안목은 1920년대 국가의 생산과정의 독점과 농민의 필사적인 저항 사이의 갈등과 위기현상을 갖고 오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1917년의 레닌의 「Pt독재」는 그 자체가 「Pt의 민주정」인가, 「Pt의 권위정」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처음에는 탄력적이고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란을 거치면서 Pt독재는 독재정의 개념 속에 유보조항없이 권력남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남겼고, 정치文化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관료적 黨에 의한 독재로 전락하였다. 말

년의 레닌은 黨內의 비판적 능력은 갖추고자 몇몇 제도적 시도를 하였지만 입법과 행정권을 집중한 정부기구, 대표선거제 폐지, 黨의 비판적 세력을 黨 밖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Pt독재는, 고도의 권력 그 자체가 갖기 쉬운 강압적 속성과 불세비키의 취약한 사회적 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Pt독재 이론은 영구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이바지하였다.

결국 1930년대에 가서 러시아의 Pt독재는 언제나 행정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추구되었고 경제는 경제법칙이나 사회적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졌다. 사회주의 의식화 역시 합리적인 확신이나 토론과 사명감에 의해 심어지기 보다는 세뇌의 기술, 선전, 인위적인 선동으로 심어져 갔다. 즉 바꾸어 말하자면 意識(Consciousness)이란 객관적 법칙에 대한 깨달음과 自我意識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작성을 의미하였고 이의 가장 극렬한 형태가 스탈린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다.⁸⁶⁾ 그러나 스탈린 시대는 레닌의 시대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이행기의 점진적 시행에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비판력이 완전히 중지되었다는 것은 불세비키 정권의 또 다른 비극이었다.

86) Tucker, R. C., *Stalinism* (New York, 1977), Part. I 참조. von Laue, T. H., *Why Lenin? Why Stalin?* (Philadelphia, 1964); Carr, E. H., "Marx, Lenin and talin," in R. Pipes, *op. cit.*, (1968) pp. 361-372.